

# 울산 반구대 선사문화전시관의 부지 변경과 유적일대의 사적지정 방안

박 희 현\*

- I. 머리말
- II. 선사문화전시관의 부지 변경 대안
- III. 암각화유적 일대의 사적지정 방안
- IV. 맺음말

## I. 머리말

울산 반구대 암각화유적이 울산시의 지역개발 논리 앞에서 보존상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실제로 사정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편이다.

반구대 암각화유적은 선사시대의 바위그림유적으로 한국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과 문화상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아가 이 유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희귀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반구대 암각화유적을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보존을 위하여

---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현재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 글에서는 유적의 보존을 위한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전시관의 건립 장소를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반구대 암각화유적을 포함하여 유적의 주변을 사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유적의 보존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참고로 지금까지 진행된 반구대 암각화유적 주변의 「개발 계획」과 「유적보존 운동」 과정을 일지 식으로 요약, 정리하여 아래에 소개한다.

- 2000년부터 울산시는 국고를 들여 반구대 암각화유적의 주변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개발 계획을 세움.

- 2001년 9월에 「반구대 암각화 주변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설계안」을 발표, 이에 역사학 관련 학회들과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유적 주변이 개발로 인해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반구대 암각화유적 보존 운동」을 펼침.

- 2003년 8월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의 중재로 '이후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유적과 관련한 개발 계획은 학계 및 시민단체와 울산시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고 약속함.

- 그 후 울산시는 문광부의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04년 10월에 학회 및 시민단체들과 사전에 아무런 합의도 없이 「선사문화전시관」의 건립위치를 변경하고 반구교 입구에 부지를 선정, 매입하여 건립을 추진함.

- 2005년 9월에는 울산시가 학회와 시민단체에 일절 알리지 않고서 전시관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회와 시민단체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건립 장소를 현재의 주차장 밖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하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함.

- 2005년 12월에 학회와 시민단체는 반구교 입구에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울산시의 계획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천전리 각석에서부터 반구대 암각화에 이르는 대곡천변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장 앞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함.

- 2006년 3월부터는 문화재청장이 학회 대표들과 울산시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으나 전시관 건립 장소에 대하여 학계와 울산시 사이에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함. 문화재청장은 일주일 후에 현장을 답사하여 부지를 물색하겠다고 하면서 관계자들의 참여를 주문함.

- 2006년 5월에 문화재청장은 울산시가 건립 부지로 삼고 있는 대곡천변에 그대로 설계를 변경하여 전시관을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함. '한국암각화학회' 및 '한국미술사학회' 그리고 '울산 반구대 암각화유적 보존대책위원회'가 2006년 3월의 회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함. 이 과정에서 몇몇의 학회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문화재청장의 견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임.

• 2006년 5월의 회의에서 문화재청장은 더 이상 '중재'를 하지 않겠다고 포기 선언을 하여 오히려 전시관 건립문제를 울산시에 내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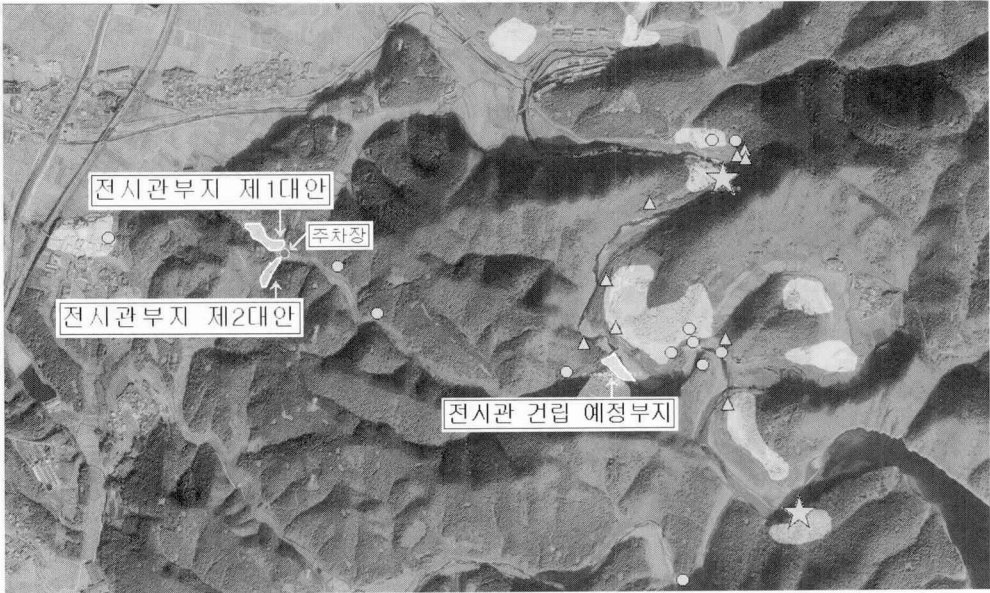
## II. 선사문화전시관의 부지 변경 대안

울산시가 2006년 10월에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선사문화전시관'을 착공하고자 한 장소는 반구대 암각화유적으로부터 불과 약 8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반구교 입구인 대곡천 변이다. 그 주변은 반구대 암각화유적과 천전리 암각화유적이 형성되기 시작한 선사시대 이래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어 신비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산과 계곡이 잘 어우러진 곳이다. 이 지역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사냥도 하면서 바위에 그림을 그렸던 곳으로 선사인들의 제의공간이자 생활공간이었던 것이다. 글자 그대로 이곳은 신성한 '선사문화경관지역'이다. 그런데 울산시가 선정한 설계도면을 보면 대형 고래를 본 뜬 건물로 울산시는 주변 경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야말로 '고래 등 같은 집'을 계곡 옆에 세울 생각인 모양이다.

울산시가 반구교 입구를 전시관의 예정 부지로서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예정 부지가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유적으로부터 약 800m 떨어져 있어서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인 반경 500m 밖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전시관을 유적으로부터 좀 더 가까운 곳에 건립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유적에 편하게 접근하도록 한다는 '접근의 용이성'을 들고 있다.

전시관의 예정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인 반경 500m 밖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장소'가 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국보로부터 500m 밖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유적 주변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킨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더욱이 '위치'가 반구대 암각화유적보다 대곡천 상류 지점인 만큼 여기에 고래 등 같은 큰 건물이 들어선다면 반구대 암각화유적에서 천전리 암각화유적에 이르는 신비로운 선사문화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울산시가 계속 여기에 전시관 건립을 강행한다면 주변의 문화경관이 훼손됨으로써 태고의 산과 계곡을 감상하면서 반구대 암각화유적과 천전리 유적을 찾고자 하는 관람객들의 흥미도 반감될 것이다.



도1 울산 반구대 암각화 선사문화전시관 건립 예정부지 및 대안

이와 같이 울산시가 전시관의 예정 부지로 잡고 있는 반구교 입구는 선사시대 이래의 문화경관을 훼손시킨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이다. 그렇다고 학계와 시민단체가 선사문화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밝혀두는 것은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전시관 건립에 찬성하며 '전시'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다. 다만 건립 예정지의 장소가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해보겠다.

### 1. 제1대안: 현 주차장 바로 뒤 휴식 공간도1

이곳은 주차장 바로 뒤에 이어진 곳으로 현재 휴식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다. 이미 이곳에는 휴식 공간이 조성돼 있어 토지 매입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전시관의 규모가 반드시 커야 할 이유도 없지만 가용 면적도 울산시가 전시관 건립을 예정하고 있는 부지의 면적(약 8,960㎡; 약 2,710평)과 거의 비슷하다.

지금까지 학회와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전시관의 위치를 주차장 밖으로 옮길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이곳은 지금까지의 주장과도 합치되는 장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학회와 시민단체가 주차장 밖으로 옮길 것을 주장했을 때 울산시는 고속전철과 지근거리라는 점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으나 그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대곡천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약 1.3km) 문화재보호법에도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 대곡천변에 형성된 선사시대 이래의 문화경관을 훼손시킬 염려 또한 전혀 없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곳은 전시관 건립 부지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장소라고 생각한다.

한편 울산시는 '유적으로 접근의 용이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세계 유수의 어떠한 암각화유적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표적인 예로 알프스 산맥의 남쪽 자락에 있는 이탈리아의 발 카모니카(Val Camonica) 유적과 프랑스의 몽 베고(Mont Bégo) 지역의 암각화 유적이 있다.

그중에서 몽 베고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자.<sup>1</sup> 여기의 경우 유적전시관이 유적으로부터 동쪽으로 10km 이상 떨어진 땅드(Tende)라는 마을에 마련되어 있다. 관람객들이 이곳에 있는 유적전시관의 전시물을 먼저 보고 유적으로 향하는 것은 몽 베고 지역의 바위그림 유적을 보는 아주 자연스러운 관람 동선의 모습이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적 현장을 답사할 경우에는 유적에서 먼 곳에 주차한 다음 도보로 빙하가 지나간 알프스 산록을 감상하면서 암각화유적을 답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도 마땅히 참고하여야 할 일이다. 반구대 선사문화전시관의 경우에도 암각화유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전시관을 건립하여 오히려 관람객으로 하여금 좀 더 걸으면서 여유 있게 주변의 문화경관을 감상하면서 유적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2. 제2대안: 현 주차장 화장실 뒤 공간도<sup>1</sup>

이곳도 제1대안 지점과 대체로 비슷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다만 장소가 상대적으로 좁은 것이 흠이다.

<sup>1</sup> Daniel Riba, *La Vallée des Merveilles: Guide du Visiteur*(Editions SERRE, 1983); Young-Hee Park, *Les Gravures Rupestres Corniformes de la Région du Mont Bégo, Secteur des Merveilles, Tende (Alpes-Maritimes)*(Thèse présentée pour l'Obtention du Doctorat du Muséum National d'Histoire Naturelle, 1993), pp.5-6.

두 개의 대안 중에서 주변 환경이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제1대안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 III. 암각화유적 일대의 사적지정 방안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반구대 암각화유적 일대는 울산시의 개발계획 때문에 보존상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울산시가 벌인 일련의 계획은 유적 보존운동을 벌이고 있는 학계 및 시민단체의 견해와 상치되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충돌해 왔다. 지금도 상황이 변함이 없고 평행선만 그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제는 유적을 잘 보존하기 위하여 다른 운동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때인 것 같다. 그 중의 하나가 반구대 암각화유적을 포함하여 이 일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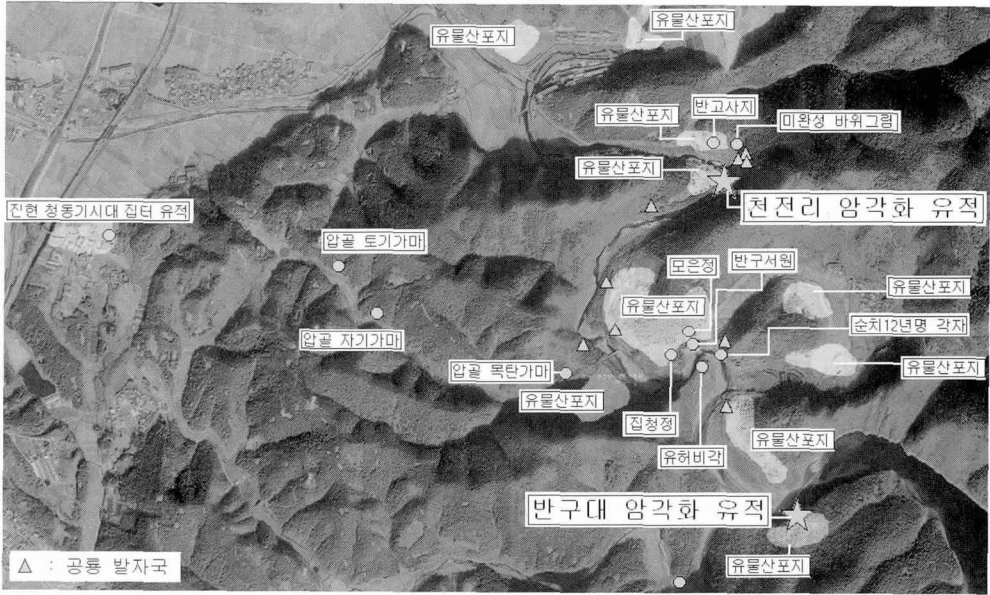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은 유적 일대를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다. 이미 2005년 12월에 학회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천전리 각석에서부터 반구대 암각화에 이르는 대곡천변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장 앞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일은 제대로 성사를 보지 못했다.

사적으로 지정하여야 할 지역은 대곡천을 중심으로 최소한 위로는 천전리 암각화유적에서부터 아래로는 반구대 암각화유적에 이르는 일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대가 대곡천변 중에서 선사시대 이래의 문화경관을 제일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일대에는 선사시대 유적과 함께 역사시대의 유적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sup>2</sup>. 우선 이 일대를 지표 조사한 결과 이 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토기 편들을 비롯하여 자기 편, 기와 편 등이 널려 있고 절터도 확인되어 여러 시기의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진현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집터를, 압골에서는 여러 유형의 가마터를 발굴한 바 있다.<sup>2</sup> 특히 지형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대곡천이 반구대에서 동북방향으로 더 휘돌아 반구마을 있는 곳까지 흘러서 현재의 강 흐름보다 더 안쪽으로 굽어 흘렀음을 알 수 있다.<sup>3</sup> 따라서 '서원마실'과 '동매실들'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지형조건을 갖췄던 곳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선사시대의 지적정보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일대에는 '반구대'를 비

<sup>2</sup> 黃昌漢, 『蔚山川前里 진현 · 압골遺蹟』, (財)蔚山文化財研究院, 2005).

<sup>3</sup> 1:5,000지형도, 彦陽 (도엽번호: NI52-02-13-057) 참조.



도 2 울산 반구대 암각화 주변 일대의 유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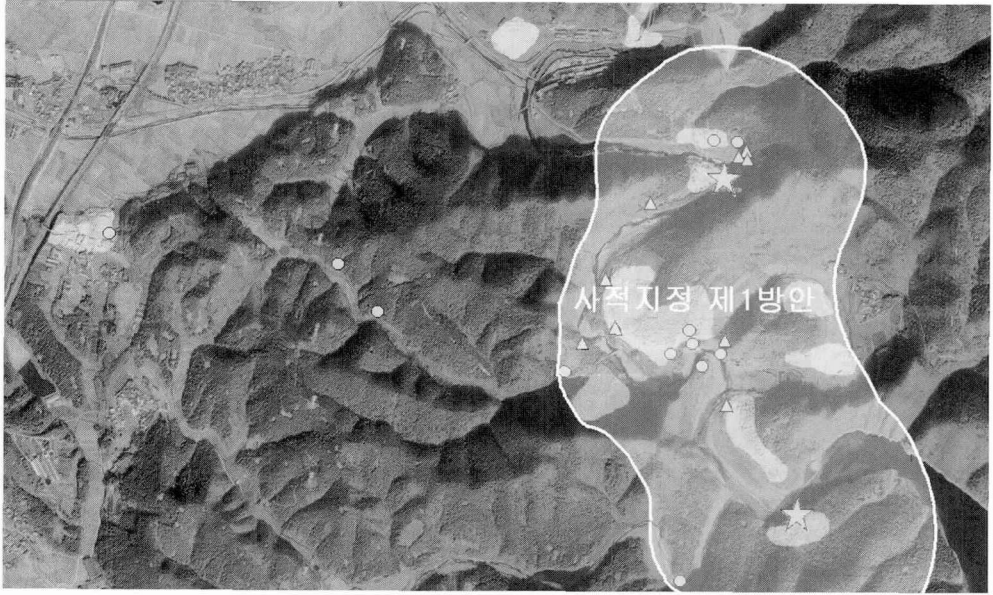
롯하여 포은 정몽주의 '유허비', '반구서원', '모은정', '집청정', '순치 12년명 각자' 등 역사 시대의 문화유적이 지상에 분포하고 있다.<sup>4</sup> 또한 중생대의 공룡 발자국도 대곡천변 여러 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일대에는 2곳의 유명한 선사시대 암각화유적 외에도 선사 및 역사시대의 문화유적이 산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사적 지정을 위한 범위에 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 1. 제1방안과 범위 도3

이 방안은 대곡천을 사적의 중심에 두고, 지표조사한 결과 유물산포지로 밝혀진 곳과 반구대 암각화유적 및 천전리 암각화유적의 반경 500m 범위 이내에 들어가는 지역을 포함 시키는 것이다.

<sup>4</sup> 朴喜顯, 「慶南 蔚山 盤龜臺 磨崖 '順治十二年' 銘 遺蹟」, 『박물관 휘보』 6(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1995), pp.103-109.



도3 울산 반구대 암각화 주변 일대 사적지정 제1방안

이렇게 할 경우 북으로는 대곡댐 부근, 남으로는 반구대 암각화유적과 연결되는 산자락, 동으로는 동매실들, 서쪽은 전시관 건립 예정 부지가 이에 포함된다. 규모는 남북의 길이가 약 2.2km, 동서의 길이 약 1.1km되며 전체의 범위는 대체로 타원형 모양을 이룬다.

## 2. 제2방안과 범위 도4

이 방안은 대곡천을 중심으로 좌·우 500m 이내의 지역과 반구대 암각화유적 및 천전리 암각화유적의 반경 500m 범위 이내에 들어가는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북으로는 대곡댐 부근, 남으로는 반구대 암각화유적과 연결되는 산자락, 동으로는 동매실들, 서쪽은 전시관 건립 예정 부지를 아우르는 압골의 일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규모는 남북이 약 2.2km, 동서가 약 1.5km 된다. 전체의 범위는 대체로 반원형 모양을 이루며 제1방안보다 면적이 약간 넓어진다.



도 4 울산 반구대 암각화 주변 일대 사적지정 제2방안

### 3. 제3방안과 범위

이 방안은 대곡천을 사적의 중심에 두고, 주변의 높은 연봉을 이어서 사적의 범위를 고려해 본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북으로는 반고사지 뒷산, 남으로는 반구대 암각화유적과 연결되는 산자락, 동으로는 반구마을 옆산, 서쪽은 압골 뒷산을 연결하는 지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규모는 남북이 약 1.8km, 동서가 약 1.9km 된다. 전체의 범위는 불규칙한 모양을 이룬다.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제1방안이나 제2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울산시와 학계 및 시민단체들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반구대 선사 문화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 변경의 당위성을 밝히고 그에 대한 대안 장소를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유적과 천전리 암각화유적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지역을 사적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분명한 것은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울산 반구대 선사문화전시관'의 건립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역사교육장은 필요한 것이다. 다만 '위치'가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울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립 예정지에서 약 1.3km 떨어진 현재의 주차장 옆에 전시관을 짓기에 좋은 부지가 있다. 울산시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곳을 새로운 전시관 부지로 검토하여 좋은 결론을 끌어내기를 바란다. 부디 울산시가 상생의 결단을 내려 '지역개발'과 '유적보존'이 공존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

선사시대 이래의 문화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천전리 암각화유적에서 반구대 암각화유적에 이르는 대곡천 주변은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사적으로 지정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앞에서 제시한 제1방안이나 제2방안을 검토한 후 이 지역을 사적으로 지정하여 잘 보존하였다가 후손들에게 잘 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아마도 사적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유지의 토지 수용을 비롯한 많은 행정적인 절차가 따르겠지만 문화재청과 울산시에서 적극성을 보인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아울러 반구대 암각화유적을 보다 잘 보존하기 위하여 하류에 있는 사연담에 대하여도 깊이 생각하여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반구대 암각화유적과 천전리 암각화유적이 세계적인 유적이라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울산광역시에 있다는 것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유적들의 소속에 대한 생각의 틀을 바꿀 것을 권하고 싶다. 이 유적들이 울산광역시에 있다고 해서 울산시만의 전유물이 아니요, 또 대한민국의 것만도 아닌 세계의 문화유산이라는 넓은 시각에서 인식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